

여대생의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

김은주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elf-esteem According to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Ideal Body Mass Index in Female College Students

Kim, Eun-Ju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self-esteem according to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ideal Body Mass Index (BMI) in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Subjects were 587 female student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by using a developed questionnaire through pretesting. **Results:** Actual number (46.7%) and actual number (5.1%) of participants were defined as being underweight and overweight, respectively. Nearly all participants expression high dissatisfaction with their body shape. Averages of 1.02, 2.97, 7.81 were revealed for underweight,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group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ideal BMI. Those who were defined as overweight exhibited significantly self-esteem than those who were defined as underweight. **Conclusions:** The belief that body shape is heavier than actually the case may be prevalent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is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ideal BMI negatively influences self-esteem. Programs aimed at improving body image awareness an self-esteem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re needed.

Key Words: BMI, Self-esteem, Female

서론

여성은 남성보다도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외부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체형이나 외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여대생은 청소년을 갖 벗어난 시기로 외모나 체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 Lee, Kim과 Yom (2005)은 여대생의 97%가 정상체중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체중조절에 관심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여대생이 표준체중 이하의 체형을 바람직한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어 왜곡된 신체상의 편견이 크다고 하였다. 이들의 왜곡된 신체상으로 인해 여대생의 대부분은 비만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날씬한 몸매에 너무 집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

다(Jung, 2003). 그러나 이는 곧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연령층으로 이들의 건강상태가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대생의 건강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Kim & Kim, 2000).

이와 같이 여대생들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마른체형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지로 주관적인 이상적 신체상을 추구하고 현재와 이상적 신체상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신체자아에 대한 심각한 불만족을 보이고 있었다. Song (1991)은 이러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자아실현에 대한 자신감의 감소와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청년기에 있어서 주된 발달 과제인 자존감의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이고 가

주요어 : 체질량, 자아존중감, 여대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n-Ju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eon, Seosan 360-706, Korea
Tel: 82-41-660-1074 Fax: 82-41-660-1087 E-mail: eunjkim@hanseo.ac.kr

투고일 : 2008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18일

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성이며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어 왔다(Pesa, 1999). Pesa, Syre와 Jones (2000)는 여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신체의 주관적 인식 정도와 자아존중감 간에 관련 있음을 제시하였고, Hong (2006)은 자아존중감은 체질량지수와 연령과는 관계가 없어 실제로 날씬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여긴다면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고 하여 실제적인 비만 수준보다는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변화됨을 제시하였다. 즉, 여성이 갖는 이상적인 신체상은 주로 문화적인 규범이나 고정관념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이상적인 신체상과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신체모습이 일치할수록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Kim & Shon, 2004).

지금까지 일부 비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만자가 정상체중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몇몇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Pesa et al., 2000; Shin & Paik, 2003; Sohn, Lee, & Song, 2001). 그러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신체상과 이상적 신체상의 차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재 체형과 이상적 체형과의 상이 정도와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여대생의 건강한 신체상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 별로 체형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여대생의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 별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여대생의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 621명을 임의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충남소재 H대학교 간호학과 여대생 30명이 연구보조원으로 자료 수집하였으며, 본 자료 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충남소재 H대학교 여대생 5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연구보조원들이 전국 지역별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설문지 621부 중 615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대담으로 인한 28부를 제외한 총 58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사항

대상자의 나이, 학년, 거주지, 본인의 건강문제, 부모의 학력 및 가정의 월수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체질량 및 체형만족도

현재와 이상적 체질량에 대한 설문은 현재의 신장 및 체중과 대상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장, 체중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또한 현재의 체질량에 따라 그 수치가 20 미만일 때를 저체중, 20-24일 때를 정상체중, 25 이상인 경우에는 과체중으로 분류하였다.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자아 존중감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를 Jeon (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당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2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여대생의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별 체형만

측도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여대생의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별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여대생의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19-20세가 387명(65.9%), 21-22세가 149명(25.4%)이었으며, 1학년이 263명(44.8%), 2학년이 195명(33.2%), 3학년이 114명(19.4%), 4학년이 15명(2.6%)이었다. 거주지는 충청도가 163명(27.8%), 서울이 157명(26.8%), 전라도 74명(12.6%), 경기도 73명(12.4%), 경상도 66명(11.2%), 강원도 54명(9.2%)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y	N (%)
Age (yr)	<18	31 (5.3)
	19-20	387 (65.9)
	21-22	149 (25.4)
	≥23	20 (3.4)
Grade	Freshmen	263 (44.8)
	Sophomore	195 (33.2)
	Junior	114 (19.4)
	Senior	15 (2.6)
Place of residence	Seoul	157 (26.8)
	Kyonggi	73 (12.4)
	Chungcheong	163 (27.8)
	Kyungsang	66 (11.2)
	Jeolla	74 (12.6)
	Kangwon	54 (9.2)
BMI	Underweight (<20)	274 (46.7)
	Normal (20-24)	283 (48.2)
	Overweight (≥25)	30 (5.1)
	Total	587 (100.0)

BMI=Body mass index.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의한 저체중군은 274명(46.7%), 정상체중군은 283명(48.2%)이었으며 과체중군은 30명(5.1%)에 불과하였다(Table 1).

2.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별 체형만족도

자신의 체형에 '만족스럽다'는 경우는 저체중군에서는 39명(14.2%)이었으며, 과체중군에는 1명도 없었고, 정상체중군에서는 12명(4.2%)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불만족스럽다'는 경우는 저체중군은 102명(37.2%)이었으며, 정상체중군에서는 187명(66.1%), 과체중군은 28명(93.3%)으로 높았다.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별 체형만족도는 $\chi^2=76.20$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별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

현재의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 간의 차이는 저체중군(1.02 ± 1.05), 정상체중군(2.97 ± 1.29) 및 과체중군(7.81 ± 2.34)별로

Table 2. Body Satisfaction according to Female College Students' BMI Groups

BMI groups	Body satisfaction			χ^2	p
	Satisfied	Average	Unsatisfied		
	N (%)	N (%)	N (%)		
Underweight	39 (14.2)	133 (48.5)	102 (37.2)	76.20 [†]	.000***
Normal	12 (4.2)	84 (29.7)	187 (66.1)		
Overweight	0 (0.0)	2 (6.7)	28 (93.3)		

[†]Fisher's Exact Test; *** $p<.001$. BMI=Body mass index.

Table 3.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Ideal BMI by Female College Students' BMI Groups

Variable	Category	Mean ± SD	F	p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Ideal in BMI	Underweight (<20)	1.02 ± 1.05	470.01	.000***
	Normal (20-24)	2.97 ± 1.29		
	Overweight (≥25)	7.81 ± 2.34		

*** $p<.001$. BMI=Body mass index.

Table 4. Self-esteem according to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Ideal BMI in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Division	N (%)	Self-esteem	F	p	Duncan test
			Mean ± SD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ideal in BMI	0.0>D ^a	46 (7.9)	3.68 ± 0.07	23.37	.008**	a, b>c>d
	0.0≤D<2.0 ^b	264 (45.6)	3.79 ± 0.48			
	2.0≤D<6.0 ^c	240 (41.5)	3.47 ± 0.61			
	6.0≤D ^d	29 (5.0)	3.11 ± 0.60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ideal BMI; ** $p<.01$. BMI=Body mass index.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70.01, p<.001$) (Table 3).

4.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

연구 대상자 여대생 전체의 현재와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체질량보다 이상적 체질량이 낮은 군(3.68 ± 0.07)을 제외하고는, 현재 체질량이 이상적 체질량보다 0-2 미만 높은 군(3.79 ± 0.48), 2-6 미만 높은 군(3.47 ± 0.61), 6 이상 높은 군(3.11 ± 0.60)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의 체질량 수준이 이상적 체질량 수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낮았다($F=23.37, p<.01$) (Table 4).

논 의

여대생 시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완성해가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과도한 여성외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지나친 미의 신화에의 몰두로 인한 왜곡된 사회의 잣대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해서 왜곡된 신체상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Kim (1993)의 연구에서 여성의 대부분이 표준체중 이하의 체중을 바람직한 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체형이 표준보다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현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Park 등(1994)은 남녀대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78.8%가 불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여대생의 불만족은 85.3%로 남학생에 비해 많아 여대생의 80.0%가 체중을 더 줄이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들 중 과체중군은 5.1%에 불과하였고 저체중은 46.7%로 오히려 과체중보다는 저체중이 잠재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현재 체질량 수준과 이상적 체질량 수준의 차이가 저체중군은 1.02, 정상체중군은 2.97, 과체중군은 7.81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상체중군, 심지어는 저체중군에서도 현재보다 더 날씬한 체형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의 순으로 체형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상체중군에서도 4.2%만이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고 있어, 실제적 표준 신체상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시되고 있는 마른 모습이나 날씬한 체형이라는 이상적인 신체상에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스스로 내재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왜곡되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여학생

들의 경우 마른 모습의 이상적 체형과 자신의 체형을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잘못 지각하고 스스로를 매력이 없는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향(Park & Jung, 1997)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간주된다.

자아개념은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하고 사정한 결과에 의해 형성된 추상적 개념으로서, 이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관찰 및 자신의 태도, 외모 및 수행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자존감은 이러한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Taft, 1985). 체중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Ogden과 Evans (1996)의 연구에서 과체중인 대상자들(17-49세)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있었고, Kim과 Kim (2000)의 연구에서 체질량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여고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대생은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낮았다.

그러나 Park과 Jung (1997)은 단순히 비만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본래의 신체상과 이상적인 신체상이 상이할 때 신체상과 자의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신체상은 역동적 개념으로 성장과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변화되며, 개인마다 독특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므로 신체상의 변화는 자아개념의 변화로 이어져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은 정상체중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날씬하게 보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성공한 여성이 되고자 하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마치 실패한 못한 여성으로 스스로를 간주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재 체형과 이상적 신체상과의 상이정도에 따라 자기존중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 위해 여대생의 현재와 이상적 체질량수준의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체질량수준보다 이상적 체질량수준이 작은 군을 제외하고는 현재 체질량이 이상적 체질량에 비해 클수록, 즉 그 차이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Park과 Sohn (2002)과 Oh (2003)가 여대생의 신체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고, Hong (2006)이 자아존중감은 체질량지수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실제로 날씬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자신의 외모가 매력이 없다고 여긴다면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고 한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하였다. 또한 Lim 등(2001)의 연구에서 정상체중임에도 비만 클리닉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여성의 경우 비정상체중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아 실제적인 비만기준보다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상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대생은 자신의 외모매력에 주관적으로 만족할수록, 현재의 신체상과 이상적인 신체상이 상이하게 다르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현재 체질량과 이상적 체질량의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분석을 통해 여대생의 현재와 이상적 신체상의 차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여대생 587명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여대생 30명이 연구보조원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작업을 거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지역별로 자료 수집하였으며,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을 위해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 중 과체중군은 5.1%에 불과하였고 저체중은 46.7%로 오히려 과체중보다는 저체중이 잠재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여대생의 현재 체질량 수준과 이상적 체질량 수준의 차이가 저체중군은 평균 1.02, 정상체중군은 2.97, 과체중군은 7.81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상체중군, 심지어는 저체중군에서도 현재보다 더 날씬한 체형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의 순으로 체형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는 저체중군에서는 39명(14.2%), 정상체중군에서는 12명(4.2%)만이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과체중군에서는 0명(0.0%)이었다.

둘째, 여대생의 현재와 이상적 체질량 수준의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체질량 수준보다 이상적 체질량 수준이 작은 군을 제외하고는 현재 체질량이 이상적 체질량에 비해 클수록, 즉 그 차이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여대생은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는 등 왜곡된 신체상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대생의 현재와 이상적 체질량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저하되어 있었다. 이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상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좌우되는데, 특히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주관적으로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대생들이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신체상의 형성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상호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스미디어 등에서는 현실적인 건강한 신체 이미지의 모델 개발을 통해 건전한 신체상을 사회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자기 가치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Hong, K. H. (2006).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MI and body image on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Clothing & Textiles*, 30, 348-357.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unsei Journal*, 11, 107-129.
- Jung, Y. K. (2003). *Predictive factors of body weight control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Kim, K. N. (1993).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and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Nutrition*, 15, 194-201.
- Kim, O. S., & Kim, K. H. (2000). Weight,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Fema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2, 396-406.
- Kim, S. K., & Shon, S. A. (2004). The differences of the body-images and the eating attitude by BMI of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Korean Women's Research Institute*, 18, 1-12.
- Lee, K., Kim, E., & Yom, Y. (2005). Body esteem, body figure discrepancy and depression in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2, 206-214.
- Lim, W. J., Park, S. B., Kim, S. I., & Lee, Y. J. (2001). Relationships between body mass index, alexithymia, coping scale and self-esteem of women in obesity clin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7, 200-208.
- Ogden, J., & Evance, C. (1996). The problem with weighing: Effects on mood, self-esteem and body i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 Related Metabolic Disorder*, 20, 272-277.
- Oh, H. K. (2003). A stud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 278-286.
- Park, J. S., & Jung, S. K. (1997). Weight control practices, obesity and body image of adolescent girl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4, 171-184.
- Park, S. J., & Sohn, J. R. (2002). The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on body image esteem,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college women with negative body imag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 335-351.
- Park, Y. S., Lee, Y. H., Kim, Y. S., Lee, K. A., & Kim, S. K. (1994). Evaluation of attitude toward body shape and obesity in college

- students. *The Journa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17, 159-165.
- Pesa, J. A. (1999).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dieting behaviors among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69, 196-201.
- Pesa, J. A., Syre, T. R., & Jones, E. (2000). Psychosocial differences associated with body weight among female adolescents: The importance of body imag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6, 330-33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H. S., & Paik, S. N. (2003).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college femal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331-338.
- Sohn, S. K., Lee, M. H., & Song, M. S. (2001).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8, 160-171.
- Song, I. S. (1991). *Psychology and self-concept*. Seoul: Yangseowon.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d in Nursing Science*, 8, 77-84.